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 협약 23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을 통해 호남 지역 경제를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도>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본격 운영

전북·전남·광주, 경제·첨단산업·교통망 동맹 강화 협약 체결
2036 전주하계올림픽 대한민국 유치 위한 공동 협력
농생명 관련 기관 집적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호남 이전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서해안 철도 등 협력 강화

전북자치도와 전남도,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23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3개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2036 전주하계올림픽 성공 유치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호남권 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7년만에 부활한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시·도간 협력을 선언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올해 업무협약은 국제행사 유치·개최, 첨단산업 및 건설 SOC 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호남권 경제동맹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2036 전주하계올림픽 등의 성공개최를 위한 연합추진단의 구성·운영을 추진한다.

먼저 대한민국과 호남의 발전상을 전세계

로 알릴 국제행사 유치·개최를 위해 ▲2036 전주하계올림픽(전북 전주) 최종 유치 지속 협력과 ▲제33차 UN기후협약당사국총회(전남 여수)의 유치 ▲2025광주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모았다.

또한 호남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기능하도록 경제분야에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농생명 관련 기관이 집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호남이전에 공동 노력하고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AI 미래산업의 호남권 유치, 호남권의 청정에너지 환경 조성 및 첨단산업을 위한 ▲에너지원 공동 연구개발 등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가속화하기 위한 SOC 확충을 위해 고흥~광주~완주~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

도로, 새만금~고창~영광~함평~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영광~빛그린·미래차국가산단~광주송정~연구개발특구를 잇는 ▲광주 신산업선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호남의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다”라며, “전북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근간이 되었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국가가 흔들리는 지금, 다시금 호남의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이끌자”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협약을 통해 호남권 경제동맹을 더욱 견고히 해, 호남의 찬란한 풍요와 번영을 되찾고 국가대혁신을 이끄는 출발점으로 만들자”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교통과 경제가 광역화되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은 협력 기구 마련으로 더욱 구체화되며, 우리의 연대는 더 강해질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AI 인프라를 호남으로 가져오고 인재생애까지 산업 개발에도 힘을 모아 호남의 더 큰 발전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87일만에 복귀

‘재판관 임명거부 위헌’ 인정...중대성 요건엔 미충족
“한덕수 적극 행위 없었다”...계엄 적법성 판단은 미뤄
정계선 재판관만 파면 정당...나머지 7명 기각 의견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7명이 기각 의견을 냈으며, 정계선 재판관만이 인용 의견을 내며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직무 정지 87일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낸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총리직을 상실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 두 가지를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지목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한 것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법질서를 회복하려는 특검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내란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으며, 특

검법은 대통령이 특검 추천위에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는 약 2주간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 제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가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 측은 추천위 관련 규칙 개정안에 대한 현재 심판이 계속 중이었음을 이유로 추천 의뢰를 미룬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재판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개정 규칙의 위헌성을 검토하느라 추천을 미뤘다는 근거가 없다”며 “현재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위헌성을 예단한 것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법안이 아니

어서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서도 정 재판관은 한 총리의 책임을 강조했다. 현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2명을 임명한 점을 들어 위헌성을 일부 해소했다고 봤지만, 정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한 총리의 위헌 행위가 경감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마은혁 후보자는 여전히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이는 헌정 질서 수호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책임은 피청구인(한 총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여야 합의 필요’ ‘실질적 대의제 실현’을 근거로 내세웠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여야 합의 필요성을 이유로 임명을 지연한 것에 대해 “이미 국회에서 후보자들이 의결됐음에도 추가적인 합의를 요구한 것은 임명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자치도, 2025 웰니스관광지 10개소 신규 모집

4월 8일까지 추가 모집... 웰니스 관광 활성화 기대
관광콘텐츠 강화로 치유관광 활성화와 방문객 증가 예상
도, 지난해 '23년 대비 방문객수 11만 7천여명 증가 성과

전북자치도가 치유관광 수요 증가에 맞춰 2025년 웰니스관광지 10개소를 신규 모집한다. 이에 따라 도내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

도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0개소씩 선정해 데 이어, 올해도 신규 웰니스관광지를 발굴해 총 3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을 통해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건강·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숨은 명소를 찾아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치유관광 테마는 ▲자연/치유 ▲전통/생활문화 ▲힐링/영상 ▲한방 ▲뷰티/스파 ▲치유음식 등 6

개 분야로 구성된다. 특히 지난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 및 국내 치유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치유음식’ 테마를 새롭게 추가했다.

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되면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지원 ▲치유관광 프로그램 고도화 및 상품화 컨설팅 ▲국내외 홍보·마케팅 ▲웰니스·의료관광 연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모집 접수는 24일부터 4월 8일 18시까지이며,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 및 PT 평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웰니스관광지 연계 관광 콘텐츠 26개를 개발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2023년 대비 방문객수 11만 7천7백35명 증가라는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치유관광은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관광 트렌드”라며 “웰니스관광지 확대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힐링 명소 홍보에 힘써 전북을 대표하는 치유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 건강 취약계층 환경복지서비스 확대 추진

환경성질환 취약가구 진단·컨설팅 및 환경성질환 취약가구 진단 등 실내환경 개선 지원

전북자치도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의 환경성질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실내환경 관리 및 환경복지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도는 올해 민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컨설팅 지원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건축물 철거 지원 ▲환경성질환 취약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중 소규모 어린이집(430㎡미만) 및 노인요양시설(1,000㎡미만) 등은 실내공기질 법정규모 미만 시설로 제정 부담 등으로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실정

이다.

이에 도는 실내공기질 측정·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컨설팅 지원사업’을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추진해 왔다.

지난해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만족 72%, 만족 25%로 긍정적인 평가와 효과적 조사결과 매우효과 있음 44%, 효과 있음 53%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도 6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6개항목에 대한 무료측정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실시해 적정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건축물 철거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23년에는 어린이집 32개소(10,780㎡), 2024년에는 노인복지관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해 16개소(5,561㎡)를 철거했다.

올해는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11개소에 2억4천400만원을 투입해 2천878㎡를 철거할 계획으로, 생활속 유해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외에도 환경성질환 주거환경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컨설팅을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환경개선 사업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환경부(한국환경기술원)와 협업체 민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측정·진단하고 컨설팅 등 환경상담을 진행, 오는 7월 내 완료할 예정이다.

컨설팅 결과 오염물질의 노출정도,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 8월 이후 가구당 2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해 친환경 벽지·장판 시공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지선 도 생활환경과장은 “도내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을 확대 추진해 환경위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자치도, ‘2025 인구정책 콘텐츠 공모전’ 개최

인구 문제 해결 위한 도민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8개 작품 선정

전북자치도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 참여 확대와 전북형 저출생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숏폼 영상(30~60초)과 그래픽 디자인(포스터·웹 배너)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북 도민이라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출품작은 전북형 저출생 정책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거나, 정책이 도민의 실제 삶에 가져온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제작하면 된다.

도는 창의성과 활용성을 기준으로 총 8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최우수상(1명) 120만 원, 우수상(2명) 80만 원·60만 원, 장려상(5명) 40만 원·20만 원 등 총 46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7월 중 공고 및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향후 전북자치도의 공식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도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참가 신청



서 등을 작성해 출품작과 함께 전자우편(juhee21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9일 18시까지만다.

도 관계자는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인구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이춘석 의원, 자치분권과 지방소멸 대응 개정안 발의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복지 이뤄져야…기존 특례 미비점 개선, 부족한 특례는 추가할 필요 있어”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의 장기 자선들만의 특화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신설될 제도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특성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사전 협

의를 거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협의가 결렬될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의 취지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에서 정부와 협의와 조정을 통해 제도 간 적합성 및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사회보장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을 공평하게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의 입김이 강조되기 쉬운 구조다.

이에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면서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자체의 장들의 협의체의 대표자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사회복지제도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지자체의 입장이 적극 반영

되도록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복지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착 촉진과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 특례의 미비점은 개선하고 부족한 특례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에서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윤=김영록 기자

본사 사령

- ▲ 정재근 임 사회부장, 명 편집국장
- ▲ 김영태 임 경제부장

〈2025년 03월 25일자〉

도의회, ‘존엄한 죽음’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앞장

전국광역의회 중 최초로 설명회 열어…도의원 사무처직원 60여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동참

“도민 모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품위있고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4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사무처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가 국립연명의료기관에 요청해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문승우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60여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했다.

이날 행사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자치도지부관계자와 의원·사무처 직원간 1:1 상담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순으로 진행됐다.

문승우 의장은 “삶의 마지막을 품위있고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해 도의회가 직접 참여하게 됐다”며 “인생을 앞둔 환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24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사무처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 조정숙 본부장은 “전북도의회가 광역의회로는 전국 최초로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추진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애말기 치료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기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선택을 통해 개인에게 삶의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취지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19세 이상 2백74만7천여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으며, 이중 전북도민은 16만3천여명이다.

/김관 기자

윤수봉 도의원,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 발의



윤수봉 도의원

윤수봉 전북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교육위, 완주1)은 24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제4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결의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내란수괴의 중대한 헌법 파괴행위와 법률위반에 대해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가 더욱 확고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헌법수호의 최후 보

유 의원, “대한민국 헌정질서 바로잡고 민주주의 확고히 작동할 수 있길”

루인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단호하고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운운하며 ‘처단’하겠다고 위협했으며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권력의 연속적 탄압을 기도한 윤석열의 복귀는 2차 계엄 면허증과 같다”며 “국유 국민주의자들의 폭력과 법원 폭동은 물론 헌법재판소

폭동을 부추기는 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위협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평온한 연말 저녁,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공화국을 버리고 유신독재나 왕정국가로 퇴행하는 것으로 임헌주의의 부정이자 민주공화국의 부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파국을 맞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김관 기자



공백없는 필수의료, 따뜻한 공공의료, 함께 하는 의료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JEONBUK STATE NAMWON MEDICAL CENTER

SINCE 1921



2023.12.~2027.12.

인증 의료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충정로 365 / 대표전화 063) 620-1114



지역책임의료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오진규 원장>

- 심혈관, 응급, 분만, 투석 등 필수의료 제공체계 확립
- 지역사회 감염 대비 안전한 병원체계 구축
-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지역응급의료센터

■ 24시간·365일 응급진료체계 구축

♣ 문의 063) 620-1119

건강증진센터

■ One-Stop 검진시스템 구축

♣ 문의 063) 620-1160

장례식장

■ 합리적인 비용, 투명하고 정직한 장례문화

♣ 문의 063) 620-114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운영

■ 전문 의료인 24시간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

♣ 문의 063) 620-1650

전주시, 7번째 수소충전소 준공식 가져

전주·완주 혁신도시 인근, ‘상림 수소충전소’ 구축…김제·정읍 방면 수소차 운전자 충전 편의 향상 기대

전주·완주혁신도시 인근에 전주시역 일곱 번째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24일 완산구 상림동(완산구 공위팔리로 1586)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과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도·시 의원, 송재철 전북개발공사 사장 직무 대행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상림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사 및 축사, 감사패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주 상림 수소충전소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맡아 구축됐으며, 국·도비를 포함해 약 33억 원이 투입돼 이어졌다. 전주 상림 수소충전소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약 3주간 시험 운영을 거친 후 내달 15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곳은 250kg/일의 충전 규모를 갖추고 있어 하루 50대 정도의 수소승용차가 충전할 수 있다. 시는 전주 상림 수소충전소가 가동되면 전주·완주 혁신도시 주민들과 김제·정읍 방면 수소차 운전자 등의 충전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시작해 현재까지 1292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고, 7개소의 수소충전소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는 24일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과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상림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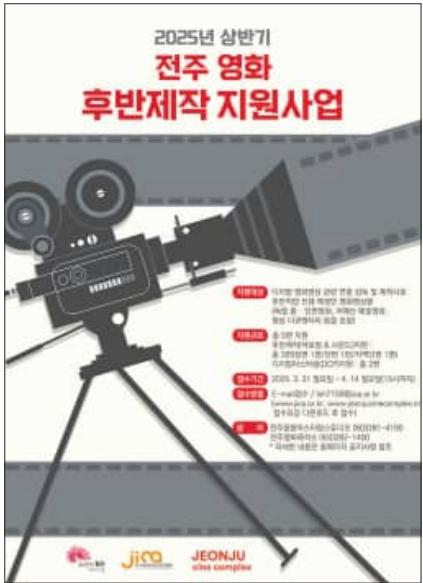
전주시, 독립·예술영화 후반제작지원 사업 공모 접수

오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신청 접수…전국 장편·단편·지역 단편·디지털 시네마 패키징 등 총 5편 선정

해마다 전주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영화의 도시 전주시가 올해도 독립·예술영화의 제작을 지원해 든든한 후원자가 돼 주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 독립영화 제작환경을 활성화하고,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2025년 상반기 전주 영화 후반제작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주국제영화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주 영화 후반제작지원 사업은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에서 음향 마스터링을, 색보정 스튜디오에서 색보정 및 DCP 제작을 각각 지원함으로써 독립영화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장편 1편 ▲전국 단편 1편 ▲지역 단편 1편 ▲DCP(디지털 시네마 패키징) 제작 2편 등 총 5편의 작품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창작자들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www.jica.or.kr) 또는 전주영화제작소 누리집(www.jeonjucinecomplex.kr)의 공지 사항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이와 관련 이 사업을 통해 기간 후반작업을 진행한 작품들은 이미 국내외 영화제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그 가치를 증명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3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신동민 감독의 ‘당신으로부터’가 한국경쟁 대상을 차지했으며, ‘202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조세영 감독의 ‘K-Number’와 송지서 감독의 ‘유림’이 각각 다큐멘터리 부문 관객상과 와이드앵글 경쟁부문 선제상을 수상하며 영화팬들과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2024년 부천국제

판타스틱영화제’에서는 정재훈 감독의 ‘에스퍼의 빛’이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부문 작품상을 수상하며 독립영화의 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열린 ‘제50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는 전주 영화 후반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후반작업을 진행한 작품들이 3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조세영 감독의 ‘K-Number’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송지서 감독의 ‘유림’은 단편대상과 국제오픈스티 컷출상에 이어 ‘제45회 청룡영화상’에서 단편영화상을 수상하며 독립영화계에서 전주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앞으로도 전주 영화 후반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독립영화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작품들이 완성도 높은 결과물로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관계자는 “2025년 상반기 공모에 많은 독립영화 창작자가 참여해 전주의 후반제작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봄나들이철 식품위생 사고 예방 ‘집중’

전주시가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식중독 등 식품위생 사고 예방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불꽃 탐방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등 불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전주동물원과 전주한옥마을, 전주역, 시와·고숙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우선 최근 2년간 위생 점검 이력이 없거나, 과거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냉동·냉장 제품 적정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봄철을 맞아 나들이객이 많아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밥과 핫바, 햄버거 등을 수거해 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항목도 검사하기로 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1화용품줄이기 시민강사’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전주시는 24일 1화용품 줄이기의 필요성과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홍보를 위한 ‘찾아가는 환경교육’에 앞장서온 ‘1화용품 줄이기 시민강사’들과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학교와 유치원을 비롯한 교육기관과 경로당 등에 파견돼 환경교육에 힘써온 시민강사들의 강의 역량을 강화하고, 곧 시작되는 2025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강사들은 이날 전주권소각자원센터와 전주시싸이클링타운,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등 전주시역 공공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전반을 둘러보며 각 시설별 폐기물 반입과 처리 과정에 대해 간략히 알고 있던 정보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민강사들은 각 시설별 폐기물의 반입량과 처리량, 재활용률 현황 등 교육용 자료에 포함된 전주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한 각종 통계 자료를 갱신하고, 생동감 있는 교육을 위한 시청각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처리시설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는 1화용품 사용 줄이기와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고 환경교육 등 유사 활동 이력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선발 과정을 거쳐 총 9명의 ‘1화용품 줄이기 시민강사’를 양성했다. 이렇게 양성된 시민강사들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센터와 경로당, 학교, 유치원 등 총 114개 기관에 파견돼 1만4400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영선 전주시 자원순환복지국장은 “1화용품 사용 자제와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의식 확산을 위해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유익하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양질의 교육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매월 10일 실시되는 ‘1화용품 없는 날 홍보캠페인’과 ‘장례식장 및 카페 다화용품 사용 활성화 사업’ 등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또한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4월 4일까지 도시농업 체험농장 도란도란 회원모집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은 올해도 시민들에게 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형 도시농업 체험농장인 ‘도란도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내달 4일까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nongup.jeonju.go.kr)을 통해 도란도란 회원이 될 전주시민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는 총 35가구를 모집할 예정으로, 선정된 가족에는 가구당 툴박스(1m×3m) 2구획씩 제공된다. 참여 비용은 1가족당 5만 원이다. 시는 신청 접수 마감 후 내달 9일 도시농업 체험농장 내 교육장에서 인터넷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식 방식으로 최종 회원 명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추첨식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고 참여 여부는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더라도 부담 없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추첨식 진행 과정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으로, 추첨이 완료된 이후 회원 명단을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선정된 회원들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체험농장 회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이 농업기술과에서 제공하는 텃밭 기초교육과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도소방본부 연구 논문 발표…학술상 수상

국제 화재감식 컨퍼런스서 AI 기반 감식 기술 연구 논문 발표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에서 개최된 ‘2025년 국제 화재감식 컨퍼런스’에서 ‘초급 화재조사관 감식 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현미경 측정 방법 최적화’ 연구 논문을 발표해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제 화재감식 컨퍼런스는 최신 화재감식 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가 간 화재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화재감식학회에서 주최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올해는 미국, 중국, 키르기스스탄 등 해외 전문가를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우수논문 발표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31편의 논문이 접수됐으며, 사전 심사를 거쳐 14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전북소방을 대표해 출전한 고창 소방서 소방장 최복무, 군산소방서 소방교 홍순문은 인공지능(AI) 현미경을 활용한 전선 감식 방법 분석을 통해 최적의 측정 방식을 도출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 논리적 전개력을 인정받아 학술상(한국화재감식학회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과학적 화재조사는 화재 원인 규명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재감식기법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도, 감시원 180명 대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전북자치도가 24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 및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80명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상반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점검, 부정·불량 식품 감시, 식품 안전사고 예방 홍보 등 식품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생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해 매년 실시되는 법정 교육으로, ▲전북자치도 식품안전관리 현황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분석 등 실무 중 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식품 안전의 중요성과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적 관리 방안, 주요 위반 사례 및 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교육해 감시원들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감시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식품안전 위협 요소를 미리 인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했으며 식품위생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체계적인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했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본부, 상반기 상황관리 우수 직원 선발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21일 ‘2025년도 상반기 상황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19종합상황실에서 탁월한 상황관리 대응을 보여준 우수 직원 3명을 선발해 상장을 수여했다. 상황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소방교 서승연은 지난해 7월 완주군 장전천 하천 범람으로 주민 18명이 고립된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 접수 직후 운주119지역대와 완주산악구 조대를 즉시 투입하고, 추가로 7개 구 조대를 출동시켜 전원 무사히 구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우수상을 수상한 소방교 신유정은 지난 2월 장수군에서 발생한 축사 지붕 추락 중증외상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소방헬기 출동을 결정하고 적절한 처치가 가능한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율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119종합상황실은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서 신속한 판단과 효율적인 상황 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곳이다”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전파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쉽게 농작물을 재배하고 이웃과 교류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체험농장 회원이 아니라도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농업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시 농업기술과 관계자는 “도시 농업 체험농장에서 다양한 가족, 이웃들이 모여 소통의 즐거움과 농업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건강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도, 중대재해 예방 총력··맞춤형 컨설팅·교육 확대

공공시설·사업장 551개소 대상 상반기 안전점검 실시…즉각 개선 조치로 위험 요소 차단

도내 중소사업장 200개소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재해 사각지대 해소

전북자치도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두팔을 걷고 나섰다.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는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6월까지 도내 주요 사업장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 사업장 86개소(중사자 6천57명)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465개소를 포함한 총 55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군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관내 주요 사업장과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법령 준수 여부 ▲시설 내 위험요소 점검 ▲안전계획 이행상황 평가 등이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교량·터널·옹벽·절토사면·도립미술관 등 시설물안전법 및 실

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을 집중 점검, 도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된다. 컨설팅은 전문 자문단(8명)이 현장을 방문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제시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경영자 리더십 강화 ▲근로자 참여 활성화 ▲위험요인

제거·대체 ▲비상조지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관리 등 7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실무 교육이 오는 3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활용해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중기청, 제21대 전세희 신임 청장 취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 창업, 인력 정책분야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24일 제21대 전세희 신임 전북중기청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전세희 신임 청장(행시 51회)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 창업정책총괄과 등 주요 핵심 업무를 거쳤고, 최근에는 투자회수과장, 지역혁신정책과장을 맡는 등 벤처, 창업, 인력 정책분야에서 중기부 내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전세희 청장

전세희 신임 청장은 “최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벤처 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중기부의 역량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향후,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지역 생산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정책 모색

재생에너지 지역 활용과 RE100 산단 조성 해법 논의…이원택 의원실과 함께 ‘지산지소’ 실현 등 제도 개선

전북자치도는 24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이원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역 재생에너지의 지역 내 활용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이 보유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지역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기록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지역 내에서 우선 사용할 수 없어 타 지역으로 송전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재생에너지의 ‘지산지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산업단



도는 24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이원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역 재생에너지의 지역 내 활용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 내 활용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북연구원의 이지훈 책임연구위원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이준신 이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전

주대 임성진 교수가 좌장을 맡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북자치도, 한국에너지공단, KAIST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첫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이지훈 전북

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지역에서 우선 소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준신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이사는 “새만금처럼 재생에너지 기반이 풍부한 지역에서 산업단지 중심의 소비형 모델을 통해 RE100 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방식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전주대 임성진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전북자치도, 한국에너지공단, KAIST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북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략,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서울=김영목 기자

2월 전북 수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 5억 3,206만 달러 기록

수입 11.7% 증가, 무역수지 흑자 유지…2월 전북 수출입에 아직 미국 관세조치 가시적 영향 드러나지 않아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전북특별자치도 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2월 전북특별자치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5억 3,206만 달러, 수입은 11.7% 증가한 4억 4,591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8,614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대한민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0.7% 증가한 525억 달러를 기록했고, 전북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1.01% 비중을 차지하며 17개 광역지자체 중 13위를 기록했다.

2월 전북특별자치도 5대 수출 품목은 ▲농약및의약품(\$5,658만, 29.2%), ▲정밀화학원료(\$4,201만, 84.2%), ▲농

기계(\$3,799만, 3.5%), ▲자동차(\$3,781만, -21.1%), ▲합성수지(\$3,386만, -20.4%) 순을 기록했으며, 10대 품목 중 2개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증가를 보였다. 감소 품목 중 자동차의 경우 전시상태인 우크라이나로의 수출 감소가 주 원인이었고, 합성수지는 이태상위 다수의 수출대상국 수요가 다소 주춤했다.

권역별 수출은 농의약품 수요가 많았던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감소세를 보였으며, 국가별로는 ▲미국(\$1억 468만, 전년 동기대비 증가 -12.0%, 비중 19.7%), ▲중국(\$1억 299만, 증가 32.3%, 비중 19.4%), ▲베트남(\$3,286만, 증가 12.2%,

비중 6.2%), ▲일본(\$2,902만, 증가 -8.3%, 비중 5.5%), ▲태국(\$1,778만, 증가 93.0%, 비중 3.3%) 등으로 상위 2개국인 미·중 수출비중의 합이 전북 전체 수출비중의 약 40% 가량을 차지했다.

대미 주요 수출품은 농기계(\$3,203만)가 전북 대미수출의 30% 비중을 차지하며 1위 품목이었고, 철강관및철강선(\$1,261만), 자동차부품(\$755만)이 그 뒤를 이었다.

대중 주요 수출품은 종이제품(\$2,224만), 정밀화학원료(\$1,277만), 합성수지(\$866만) 순이었다.

2월 한 달 전북의 대미 철강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약 54%, 전월 대비로는 약 82%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작

년 같은 시기인 2024년 1~2월 기간에도 철강제품 수출이 전월 대비 47% 가량 증가했던 전례가 있고, 세부 품목별 전년 또는 전월 비교시 이달에 감소를 보인 철강제품도 있어, 이달 일시적인 수출 증가를 관세정책의 영향에 따른 선행 수출물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후 3월 발효 이후의 수출실적 추이와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기간 전북의 대미 알루미늄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7.2% 감소했으며, 전월 대비 1% 내외의 다소 미미한 증가를 기록해 2월 전북의 수출이 관세 부과조치의 영향을 받았다고 특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김영태 기자



LX공사,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110억원 규모 사업…몽골에 한국형 주소체계 도입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24년 공공협력사업 통합 공모에서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 지원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LX공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 사업을 코이카의 공공협력사업으로 제안했으며, 지난해 8월 공공협력 후보 사업으로 1차 선정됐다.

또한, 11월에는 몽골 현지에서 몽골의 주소 현황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2월 14일 최종 심사를 거쳐 공공협력사업 공모의 관문을 통과해 한국형 주소체계의 첫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게 됐다.

이번 사업이 추진된 배경으로는 몽골의 생활공간이 도시와 농촌, 유목 등으로 다양하고, 수도 울란바토르의 과밀화로 인해 효율적인 도로명 주소 체계가 필요하다는 몽골 정부의 판단이 있었다. 이를 위해 몽골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국 사례를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한국의 주소체계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

한국의 K-주소체계 도입을 위한 제안액 110억원 규모의 이번 몽골 사업

총 기간은 3년 10개월로 △주소정보 시스템고도화 △주소정보 DB구축 △게르(Ger) 지역 무단점유지 현황 조사 △길안내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역량강화 교육 등 몽골의 주소체계 고도화와 토지, 도로정보 재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LX공사는 이번 공모사업 최종 심사에서 한국형 주소체계 도입에 대한 몽골 정부의 열의와 행정안전부와 LX공사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높은 평가점수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외교부 시행계획 검토 및 ‘무상개발협력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올해 하반기 예산 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LX공사 어명소 사장은 “이번 공공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K-주소체계를 몽골에 성공적으로 전파함으로써, K-주소의 브랜드화와 이를 통한 다양한 국가로서의 확산이라는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3월 24일부터 주소 전문단을 파견해 고위급 회담 및 ‘몽골 주소법’ 개정 컨설팅을 통해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을 지원한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관원, 관공서 식당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12일간 전북지역에 소재하는 관공서 식당에 대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를 위해 자체 단속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그 동안 일반소비자가 이용하는 음식점 단속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인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관공서 입점 음식점에 대해 소비자 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등 9개반 33명을 투입해 전북지역 관공서에 입점한 음식점 106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내용의 적정 유무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등 9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적정 유무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 기준에 맞는 글자 크기, 글자 색, 원산지 표시판 부착 위치 등 표시 방법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 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원산지 표시는 일반소비자가 이용하는 음식점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민원인이 이용하는 음식점에서도 표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언제든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제조업체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69’로 하락

100 이하 지수일 시 부정적…내수 부진·경제 불확실성 속 2분기 경기 침체 전망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과 경제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2/4분기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를 비롯한 익산, 군산, 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도내 제조업체 121개사에서 회수된 조사표를 대상으로 조사한 2/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BSI(Business Survey Index)가 ‘69’로 집계됐다. BSI는 100 이상일 경우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기업경기실사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훨씬 밑도는 수치로 집계된 것은 대내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이른바 시계제로의 상황이 2

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의 여파로 수출액 감소와 채산성 악화, 영업이익 감소, 자금사정 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됐다. 지역 기업들의 73.7%가 올해 매출액과 투자실적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하향조정한 것으로 조사돼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성장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항목별 경기전망은 매출액(72), 영업이익(68), 설비투자(71), 자금사정(65) 등 모든 항목의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기업들은 정국 불안정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소비와 생산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 전망은 모든 업종의 전망지수가 기준치(100)을 하회했으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부진과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상반기 사업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대내외 리스크로는 ‘내수경기 부진(28.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20.4%)’,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15.3%)’, ‘자금조달 및 유동성문제(15.3%)’를 리스크로 지목한 기업도 적지 않았으며, ‘고환율 기조 지속(10.2%)’, ‘트럼프 2기 관세정책(9.3%)’, ‘기타(1.4%)’ 순으로 응답했다.

/김영태 기자

익산 한농연(재)익산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365만 원 기탁

익산시는 (재)한국후계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회장 서상원)가 장학금 365만 원을 (재)익산사랑장학재단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장학금은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재)한국후계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한농연의 장학금 기부는 올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서상원 회장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기탁된 장학금은 소중히 사용해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육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답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교육청, 내달부터 1회용 용기 반입 금지

10대 핵심과제 'ESG 실천' 계획 일환...텀블러 사용 인증 챌린지 등 전개 “단순 규제 아닌, 친환경적 삶 방식 장작 출발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환경·사회·윤리경영) 실천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내달 1일부터 청사 내 1회용 용기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청사 내 1회용 용기 반입 금지는 올해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ESG 실천을 위해 마련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일환이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회용 용기 반입 금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은 첫날 캠페인에 참여해 친환경 실천을 위해 1회용 용기 반입 금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이날 열린 전락회의에서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각 부서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모두 텀블러를 사용하여 ESG 실천 의지를 보여줬다.

전북교육청은 청사 내 1회용 용기 반입 금지가 잘 정착되도록 4월 한 달 동안 텀블러 사용 인증 챌린지도 전개할 예정이다.

나아가 다양한 ESG 실천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친환경 생활 방식을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및 지역사회까지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1회용 용기 반입 금지 정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친환경적 삶의 방식을 정착하는 출발점”



전북교육청은 '1회용 용기 반입 금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라며 “더 나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실천해 나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공무원 5명 선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확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4일 5층 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5명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

선발된 사례는 ▲전국 최초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하는 전북에듀페이(최우수) ▲교육공무원의 급여 및 인사기록 관리 개선으로 업무경감 실천(우수) ▲교원임용 시험 응시자의 불안 요소를 차단한 사전 설명회 개최(장려) ▲학생의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장치 고안(장려) ▲스마트 탄소중립 교육의 윤리경영 강화 및

관련 예산 절감(장려) 등이다.

이들 사례는 교육부 적극행정 실천사례 경진대회에서 다른 시·도교육청 우수사례와 겨루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우리 청에서 제출한 '통학차량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등급을 차지한 바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고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적극행정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 이장호 총장 직위해제... 엄기욱 총장 직무대리 지정

교육부 사기 등 혐의 재판 중인 군산대 이장호 총장 직위 해제... “구성원 모두 합심하여 흔들림없이 직무 수행할 것”



(사진)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지난 24일 군산대에 따르면 교육부 총장 직위 해제 인사 발령 통고에 따라 긴급 주요 보직자 회의를 통해 엄기욱 교

무처장을 직제순에 따른 총장 직무대리로 지정, 대학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 전 총장은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3일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총장 취임 전인 지난 2021년~2022년 해상풍력연구원장 재직 당시 국제사업인 '해상풍력터빈 기술개발사업'을 총괄

하면서 22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기욱 총장 직무대리는 “학생, 교수, 직원 등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흔들림없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한편, 보다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 가자”고 밝혔다.

특히, “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글로벌대학사업, 모집단위 광역화 등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

행할 것” 강조했다.

엄기욱 총장 직무대리(58세,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성결대학교를 졸업했고, 일본사회사업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사,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전) 등을 역임했으며, 법무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 입학식 개최...172명 교육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단계 더 높은 배움 세계 경험하게 될 것”

전북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정덕호 교수)이 지난 22일 전북대학교 진수관 가인홀에서 2025학년도 입학식을 갖고 1년간의 심화 및 사사과정에 돌입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내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덕호 원장의 인사와 교육과정 안내 등이 진행됐다.

올해에는 초등심화과정 55명을 비롯해 중등심화과정 85명, 중등사사과정 32명 등 총 172명이 입학했다.

심화과정 학생들은 STEAM교육, SW 융합교육, 프로젝트 탐구활동 등 1년간 100시수 이상의 다양한 영재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심화과정 중 영재성이 뛰어난 학

생을 대상으로 한 사사과정에서는 연구프로젝트 형태로 80시수 이상의 교육이 진행된다.

정덕호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장은 이날 입학식에서 “우리 영재교육원에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수학·과학·공학·인문학 분야 등 매우 다양한 주제로 한 단계 더 높은 배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과학영재들이 교육을 통해 지역과 국가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영재교육원은 1998년 전북대 사범대 과학교육연구소 내에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센터'로 설립돼 2002년 전북대 부설기관인 '과학영재교육원'으로 승격돼 올해로 28번째 운영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전북자치도선관위, 전주해성고 6백여명 대상 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 실시

“선관위 전문강사 교육으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선거 중요성 일깨우는 좋은 기회 된 것 같다”... 연수 희망시 전북선관위 홍보과 문의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주해성고 학생 6백여 명을 대상으로 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16세 이상 국민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18세 이상 국민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주권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고자 해마다 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주해성고 담당교사는 “선거교육 콘텐츠가 부족해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선관위 전문강사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교육 전문강사 출강 또는 동영상 시청 등 선거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연수를 희망하는 고교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북선관위 홍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혜민 기자

전주대·싱가포르, 지속적 국제 협력...싱가포르 TPC 대학 단기 연수 등 진행

싱가포르 TPC 호텔관광학과 학생 24명 전주대 초청... 외국인 시각으로 본 전북 관광 활성화 방안·개인적인 소감 공유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최근 싱가포르 국회의장단의 전주대 방문과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 대학(Temasek Polytechnic

College, 이하 TPC) 호텔관광학과 학생들이 전주대에서 단기 연수를 진행하며, 전주대-싱가포르 간 지속적인 국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1일, 싱가포르 국회의장인 시안 키엔 팡(SEAH KIAN PENG)을 비롯한 싱가포르 방문단은 전주대를 방문해 교육,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러 의견을 논의했다.

이어 17일부터 21일에는, 싱가포르 TPC 호텔관광학과 학생 24명을 전주대로 초청해 단기 연수를 진행했다.

특히, 연수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5일 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 발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싱가포르 학생들은 외국인의 시각으로 본 전북 관광 활성화 방안과 개인적인 소감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전주대학교는 싱가포르와 지속적인 국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교환학생 및 교환교수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국내 1위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수강 전문 기업-세아베스틸
이제, 세계 최고의 특수강 메이커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Born to be Special

SeAH Bestee

군산시, 제25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군산시가 민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각계 우수인력 확충을 위해 내달 7일까지 제25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시계획 및 개발 행위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모집 분야는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등이며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 또한 위원으로 위촉되면 올해 5월부터 2년의 임기를 갖고 활동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술사(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사(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등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받는 자이다.

상세내용 및 제출서류 등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고해 군산시청(3층) 도시계획과(063-454-3503)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외국인 근로자 교육… 한국어 배우며 지역사회 한결음 더

정읍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7월 20일까지 매주 일요일, 시청 별관 1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며 정읍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25명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기초 한국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장 and 일상에서 겪는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학수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교육이 지역사회에 더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생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확대하며, 다문화 포용 도시로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벚꽃사진 인증샷 ‘군산에 봄이 다시 왔나봄’ 이벤트

군산시가 관내의 벚꽃 명소를 대상으로 한 벚꽃사진 인증샷 ‘군산에 봄이 다시 왔나봄’ 이벤트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군산의 벚꽃 명소들을 배경으로 봄을 만끽하는 경험을 간직하고, 군산의 매력을 널리 알려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기획됐다.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군산의 벚꽃 명소 등에 방문해 사진을 찍고 본인의 사회관계망(SNS)계정에 3중 필수 태그(#군산벚꽃, #군산에봄이다시왔나봄, #사진촬영위치))를 포함해 올리면 된다.

응모된 사진은 군산시 홍보 이미지로 사용될 수 있다. 행사 기간은 내달 13일까지이다. 시는 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구제역 유입 차단 총력

최근 전남 구제역 잇따라 발생 따라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2주 앞당겨 긴급 시작

정읍시는 최근 전라남도 영암과 무안 지역에서 구제역이 14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긴급 백신 접종과 24시간 방역체계 가동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당초 내달 1일부터 계획했던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2주 앞당겨 지난 14일부터 긴급하게 시작했다.

접종 대상은 소 1714농가 10만 1290두, 염소 102농가 9743두 등 총 11만 1033두다.

접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수의사 등 수의사 8명과 염소 보정단 1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접종지원반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모든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규모 농가(소 50두 이하, 염소 300두 이하)에는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접종도 지원하며, 전업 규모 이상 농가에는 백신 구입 비용의 50%를 보조해 농가 부담을 줄였다.

또한 시는 방역차량 13대를 총동원해 축산농가 주변 도로와 점점지역 주요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용계동 거점소독 세척시설은 24시간 상시 운영 중이다.

방역대책 상황실도 24시간 체제로 운영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일제 백신 접종 ▲전담 공무원제 운영 ▲공수의 활용 정기 예찰 ▲소독약품·생석회 공급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2017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신기환 축산과장은 “2년 만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한 상황에서, 농가의 철저한 예방 조치만이 유일한 방어 수단”이라며 “농장 단위의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백신 접종을 반드시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의회,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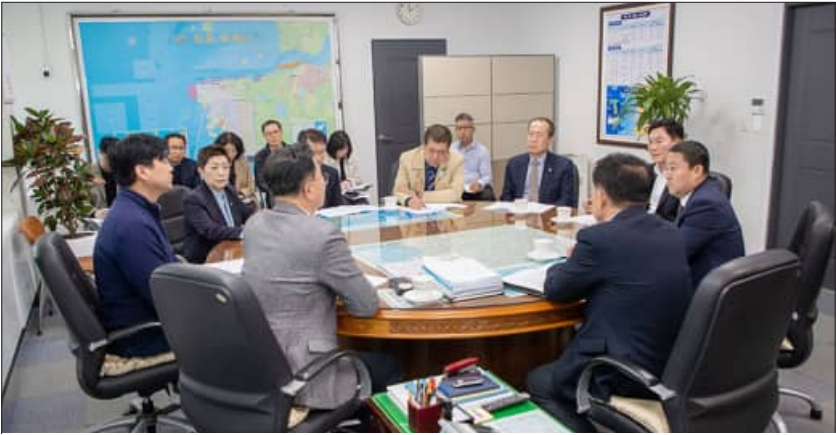
류승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면담…군산새만금신항·군산항 원포토·준설토 문제 현안 건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류승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면담하고 군산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원포토 운영 효율화와 군산항의 준설토 문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면담에는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 지해준 경제건설위원장과 새만금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과 우종삼 부위원장, 군산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군산시의회는 군산항의 수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과 대형 선박의 기피현상을 지적하며, 군산항의 항만 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시 준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항으로 추진되는 만큼 군산항과 원포토 항만으로 통합 운영되어야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했다

류 청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군산항 준설토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 계약과 제2투기장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군산시의회도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문제는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지역 항만 발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

력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은 “오늘 면담을 통해 지역 항만 발전에 대한 시의회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항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계화림이 쏜다…“힘내자 익산! 만원 행복” 최대40% 인하

익산시 제1호 명예도로 ‘하림로’ 재지정 기념 특별 할인 행사…다리로움 카드 제시 등 추가 할인

익산시 치킨로드 거점 공간인 ‘계화림’이 외식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특별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시는 계화림이 익산시 명예도로 1호인 ‘하림로’ 재지정을 기념해 내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힘내자 익산! 만원의 행복’을 진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로 닭 구이류와 옛날 토닭, 로스트치킨, 닭갈비국수, 닭육개장 등 모든 메뉴를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보글하우스·시티투어 관광객과 익산역 이용객은 20%, 다리로움 카드

를 제시하면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최대 1만 원 이하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계화림은 2023년 9월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1층에 문을 연 닭구이 전문점으로, 중앙동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와 향토기업계화림이 함께 추진하는 ‘치킨로드’에 거점으로 동지를 틀었다.

(계화림의 계열사인 ㈜엔바이콘이 ‘신선하지 않으면 굶지 않는다’라는 가치를 내걸고 운영하고 있다.

한원탁 ㈜엔바이콘 대표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이 부담 없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길 바라



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음식을 제공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익산을 찾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 2025년 치유농업 기초과정 개강

농업 활동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단순한 농업체험 넘어 정서 안정·심리 치유 목표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치유농업 전문가를 꿈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2025년 누구나 참여하는 치유농업 기초과정’을 개강한다.

오는 26일에 시작하는 이번 교육은 올해 신설됐으며, 이달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12주간(12회, 총 42시간) 치유농업에 관심이 있는 군산 시민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는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치유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시민의 치유농업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관내 치유농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농업 분야의 새로운 바람인 ‘치유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으로 단순한 농업 체험을 넘어 정서 안정과 심리 치유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체적·정서적 재할 프로그램으로

써 치유농업의 관심도 역시 높아진 만큼, 신청 전부터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이에 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치유농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보다 모집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교육 지원으로 시민의 치유농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도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도농통합 30주년 여행 이벤트

익산에반하다챌린지 3.0' 진행…방문 인증시 특산물 꾸러미 제공

익산시가 옛 도심과 백제역사유적, 지역 맛집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여행 이벤트를 선보인다.

익산시는 이리시와 익산군의 도농 통합 30주년을 기념해 ‘익산에 반하다 챌린지 3.0’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옛 이리시와 익산군 지역의 관광지를 각각 1곳 이상 방문하고, 익산 소재 카페나 음식점을 이용한 인증사진을 남겨야 참여할 수 있다.

총 3곳을 방문한 사진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후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네이버폼(naver.me/GNWTvBOS)을 통해 이벤트 신청을 하면 된다. 선착순 30명에게 고구마, 방울토마토 등 익산의 특산물로 구성된 3만 원 상당의 꾸러미가 지급될 예정이다.

옛 이리시 지역인 중앙동과 인화동에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관광지

주요 관광지로는 ▲라면전시체험관 ‘보글하우스’ ▲글로벌문화관 ▲근대역사관 ▲익산시민기록관 ▲소리문화극고 ▲함일독립운동기념관 등이 있다. 또한 중앙시장과 청년몰, 남부시장과 치킨거리 등 다양한 볼거리·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옛 익산군 지역으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 미륵사와 왕궁리유적을 비롯해 자연 속에서 쉬어 갈 수 있는 고스락, 아가페정원, 달빛소리수목원 등이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사랑상품권, 2025년 판매 1,000억 원 돌파

소비자 최대 20% 혜택…민생경제 회복·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톡톡

군산시가 지난 21일 기준 군산사랑상품권 판매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지난해 3,185억 원보다 935억 원 늘어난 4,120억 원 규모로 발행하였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지역 소상공인의 높은 관심 속에 빠르게 판매되고 있다.

올해는 실질적인 상품권 이용 혜택도 크게 확대됐다. 우선 월 구매 한도가 지난해 40만 원에서 올해 5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상품권 구매 시 10% 선할인 혜택과 더불어 올해부터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더 적립해주는 추

가 혜택(월 최대 2만 원 한도, 예산 소진 시까지)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군산시는 이런 정책을 통해 소비자

들이 실질적으로 최대 20%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상품권 활용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추가 적립(인센티브) 지급액도 40억 원을 돌파하면서, 지역 내 소비 촉진은 물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군산시 내 약 1만 2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동네 마트, 음식점, 학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2025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 개최

보석의 도시 익산에서 화려한 봄을 맞아 아름답고 다채로운 보석 축제가 열린다.

익산시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왕궁면에 있는 주얼팰리스와 보석테마관광지 일원에서 ‘2025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가 열린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사)주얼팰리스협의회(회장 송재규)가 주관하고, 주얼팰리스 54개 업체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 방문객들은 다채로운 보석 제품(24K, 다이아몬드 제외)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맞춤형 보석을 제작할 수 있는 리세팅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행운을 기원하는 탄생석 전시와 보석산업 관련 사진전, 어린이를 위한 모래공원, 칠보공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축제가 열리는 보석테마관광지 내에는 11만 9,000여 점의 보석을 소장한 보석박물관과 다이노키즈월드, 공룡테마공원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사)주얼팰리스협의회(063-834-51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의회, ‘숨은 예산 찾기 연구회’ 활동 개시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숨은 예산 찾기 연구회(대표의원 손진영)」가 지난 24일 익산시의 숨은 예산을 찾기 위한 연구활동을 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을 초빙하여 연구단체 의원들과 “중앙정부 예산이 익산시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눴다.

연구단체 대표인 손진영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가속화 등으로 우리시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였다”면서, “이번 연구회를 통해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익산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숨은 예산 찾기 연구회’는 손진영 의원을 대표로 하여 총 4명(손진영, 이종현, 장경호, 조규대)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4일 1회차 세미나를 시작으로 내달 22일까지 총 5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제’ 노력 결실 맺어

기업에로 해소 및 기업지원·투자유치 등 인정…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수 지자체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차별화된 기업에로 해소 및 기업지원 시책 추진·투자유치 성과 등을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는 전북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계획 수립,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추진 실적, 중소기업 제품구매 실적, 도 중소기업 육성 시책 참여도, 기관장 관심도 등 16개 항목의 지표를 17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한다.

이번 선정에서 김제시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2천만 원을 받게됐다.

시는 지난해 ‘기업이 살아야 김제시가 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부서별 기업전담제, 우수 외국인 유입과 관내 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더불어, ▲수출지원사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지난해 6월 현재 조성 중인 김제시 지평선제2산업단지과 백구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해 12월에는 ㈜성원티아이씨와 분양계약을 체결해, 조성된 지 8년 9개월 만에 지평선산업단지 내 분양가능토지를 모두 분양하는 데 성공했으며, 지평선산업단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을 이끌어 내 중소기업의 기업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지평선제2산업단지, 백구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고,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시책 강화에도 더욱 정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제’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2026년 국가예산부처 단계반영 최선”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 3월 중 연석회의서 강조…착한 선구매·선결재 캠페인 적극 실천 당부



권익현 부안군수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부처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24일 열린 3월 중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긴축·건전재정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지만 지역 소멸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관과소에서는 부처 지출한도 통보 이전인 오는 4월 중순까지 신규사업 추가 발굴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발굴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점사업 선정과 부처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별 당위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부처 방문 등 전방위적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또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목표로 착한 선구매·선결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심리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업무 추진 시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하고 식비도 미리 계산하는 착한 선구매·선결재 캠페인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도로정비, 건축공사 등 각종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추진할 경우 공사현황 및 계획을 사전에 게시하고 소음·진동 저감 대책 등을 마련해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사업 시행

이달 중 대상자 선정·오는 4월 공사 본격 추진…약30세대 주거 환경 개선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주거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

위계층과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등이 해당되며, 사업비는 1억1천4백만원으로 약 30세대 정도의 대상자들에 게 세대 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주거 환경을 개선 시킬 계획이다.

장애인 주택개조 주요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단열재 보강, 창호교체, 도배, 장판 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3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

는 4월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국제 우호도시 日고치현 시만토정과 스포츠 교류

고창군이 지난 23일 국제 우호도시인 일본 고치현 시만토정에서 개최된 ‘제17회 시만토강 사쿠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양 도시간 우호를 다졌다.

이번 방문은 일본 시만토정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조만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이영운 고창군 기획예산실장, 오철환 고창군 체육회장, 마라톤 동호회 회원 등 12명이 함께했다.

고창군과 일본 시만토정은 2012년부터 국제 우호협약을 체결 이후 상호 대표축제 방문, 관광지 연계 홍보, 청소년 외교관 활동, 교육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고창군 대표단은 나카오 히로노리 정장의 따뜻한 환대와 함께 시만토정 청사 및 의회를 방문해 심도 있는 교류사업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만토정 스포츠클럽을 방문해 스포츠클럽 회원과 고창군 체육회 간에



각국의 마라톤 대회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등 스포츠 분야의 우호교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영운 고창군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마라톤 교류를 통해 양 도시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국제 우호도시와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에는 시만토정 대표단이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 참여했으며, 11월에는 고인돌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하는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공개모집

고창문화관광재단, 2개사 선발해 개발비 등 최대 2천만원 지원

고창문화관광재단이 24일부터 ‘2025년 고창형 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의 국내방문) 여행 활성화 지원 사업’의 여행사를 공개 모집한다.

고창군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명성을 알리는 것이 핵심이다.

모집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 등록 국내 여행사로 심사기준에 따라 네 가지 분야 특화 인바운드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할 여행사로 2개 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여행사는 2025년 11월까지 활동하며 재단과 협업체 홍보 마케팅비, 상품 개발비, 상품 운영비를 최대 2000만원 지원받는다.

/고창=백종규 기자



조창환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고창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함께 협업할 국내 역량 있는 여행사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말했다.

김제시의회, 3월 의원간담회 개최…주요 현안 등 검토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2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3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 15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가 제안한 ‘2025년 의사 운영 기본계획 변경안’과 제288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비롯해 각 부서에서 제출한 주요 사업계획들이 검토됐다.

의원들은 교육문화과의 ‘김제시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 계획안’을 검토하며,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프로그램 기획 참여와 소통 공간 지원에 주목했다.

특히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청소년 범죄·비행 예방과 지역사회 연계 멘토링을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청

소년 보호·선도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투자유치과가 보고한 ‘2025년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 공모 계획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반값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을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저출생 대책으로, 김제시는 산업단지 및 스마트팜 혁신벨리로 인해 유입될 청년·근로자들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월 의원간담회를 주재한 이정자 부의장은 “시의회는 김제시의 현재를 꼼꼼히 살피고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인구 5만 지키기’ 범군민 실천운동 본격화

고창군이 인구 5만을 지키기 위한 범군민 실천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고창군은 24일 고창군 기관장 모임인 모양회 3월 정기회의에서 ‘인구 5만 지키기 범군민운동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에는 모양회원 30여 명이 참석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행사에서는 ▲인구 5만 지키기 범군민운동 실천 서약 ▲인구 5만 지키기 피켓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기

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고창군은 ‘고창 愛 주소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분야별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구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 인 부서 협의를 거쳐 체계적인 인구시책을 발굴해 인구 지키기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군민 모두가 인구 5만 지키 운동에 관심을 갖고, 실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간부공직자 반부패 청렴실천 다짐 결의대회 개최

부안군은 24일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5급 이상 간부공직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부안 실현을 위한 간부공직자 반부패·청렴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군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청렴실천을 서약하고 이를 통해 간부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재확인했으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솔선수범, 적극행정, 금품·향음·편의 부정정탁 근절, 상호존중·배려하는 공직문화 조성

등 청렴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청렴과 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실천 방안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유하며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군은 2025년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 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 갑질 근절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청보리밭 축제’, 4월 19일 개막

관광객 맞이 준비한창

고창군이 내달 19일부터 5월11일까지 ‘제22회 고창청보리밭 축제’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원 일원에서 펼쳐질 이번 축제를 위해, 안전한 축제장 조성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봄나들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청보리밭에 빠진 K컨텐츠=올해로 22회를 맞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드라마 같은 풍경, 영화 같은 하루’를 주제로 정했다. 실제 고창 청보리밭에서 촬영된 드라마와 영화 속 장면을 재현한 포토존을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영화·드라마 속 장면이 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축제=안전하고 깨끗한 축제장 조성을 위해 공동화장실, 테크길, 주행사장, 이진, 편의시설 등을 정비중이다. 여성 관광객을 위해 여성 전용 임시화장실 운영을 확충하고 안내판, 고사목 정비 등 주변 환경정비를 병행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하고 그 속에서 경제적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축제의 발전이 가능하다”며 “지역의 상생발전을 지향하며 경관축제 1번지를 넘어 전국에서 으뜸가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대한민국 대표 직거래박람회 참가…농·축·수산물 판로개척 도모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1회 대한민국 대표 직거래박람회에 참가해 김제를 널리 알렸다고 밝혔다.

제11회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박람회는 대한민국 각 시도를 대표하는 특산물을 모아 농·축·수산물의 판로개척을 도모하고자 개최됐으며 ‘라비엘(대표 조도현)’, ‘송이영농(대표 박기형)’이 김제를 대표해 참가해 건강즙, 송이버섯 등을 전시 판매했다.

더불어 행사에 참가한 관람객에게 관내 우수 농·특산물을 알리는 홍보 전단지 및 김제시 공동브랜드 지평선쌀을 배부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박람회 행사기간에 김제시의 우수 농특산물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부각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김제 농특산물을 판로 다각화 및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8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참여…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21일 부안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권익현 부안군수 주재로 군, 경, 소방,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8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총 11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2025년 안전관리계획(안), 제7회 개암동벚꽃축제 안전관리계획안, 2025년 부안군 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 선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2025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의무계획으로 군 안전관리 체계, 재난관리역량 강화 방안, 자연재난·사회재난을 포함한 총 3개 분야 41개 유형의 세부대책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안전사고 관리대책을 담고 있다.

또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부안군 상서면 개암동벚꽃길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7회 개암동벚꽃축제 안전관리계획안과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9개 시설분야 107개소)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권익현 군수는 “봄철은 지역축제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다양한 사고위험으로부터 선제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위원들의 협조와 관심 속에 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365일 모두가 안전한 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순창군, 제22회 옥천골 벚꽃축제 개막

벚꽃 개화 시기 맞춰 개막...28일 저녁 개회식 및 불꽃놀이 진행
맨손장어잡기·특산품 막걸리 시음 등 체험 마련...공연 유튜브 중계 제공

순창군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제22회 옥천골 벚꽃축제'를 순창읍 경천로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순창군이 주최하고 옥천골벚꽃축제제전위원회가 주관하며,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축제인 만큼 올해도 더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개회식과 불꽃놀이는 28일 저녁 7시 40분부터 진행되며, 축하공연으로 그 분위기를 한껏 돋울 예정이다. 아울러,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는 환상적인 경관을 연출하며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특히 선호하는 맨손장어잡기 체험과 함께 활력 넘치는 난타페스티벌, 순창 특산품 막걸리를 무료로 시음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돼 있다.



순창군이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제22회 옥천골 벚꽃축제'를 순창읍 경천로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유튜브 공연을 통해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저녁 7시부터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군민노래자랑 결승전이 펼쳐진 후 오후 9시 폐회식으로 축제의 막을 내린다.

나현주 옥천골벚꽃축제제전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면서 "아름다운 벚꽃 터널 아래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벚꽃 만개 시기에 맞춰 열리는 이번 축제는 입장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삼례책마을, '도석화와 서왕모' 전시

도교·불교 세계관 융합 회화...26일 우석대 주수만 교수 특별 강연



완주군 삼례책마을(관장 박대현)이 오는 26일부터 '도석화와 서왕모-19세기 중국 민속신앙의 미학'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도석화 작품들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사이에 제작된 대형 전지 크기의 작품 33점으로 중국 도교 사찰의 정문 화승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물들은 1980년대 중국 베이징 수도박물관에서 활동한 최인한 화백에 의해 수집됐으며, 원래는 1900~1910년경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 피에르 티에리(Pierre Théry) 신부가 수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석화는 도교와 불교의 세계관이 융합된 그림으로, 신선, 부처, 고승 등을 주제로 한 회화다. 도교 전설에서 최고위 여신으로 자리잡은 서왕모를 주제로 한 도석화는

도교의 여신과 불교의 보살 이미지를 결합해 신비로운 미술적 가치를 더한다.

이번 기획전시는 19세기 중국 민속신앙의 미학과 도교와 불교의 융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각 작품은 신성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 서왕모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도석화의 독특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수월관음보살도>는 당시 중국과 고려 미술의 교류와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시 개막일인 26일 오후 4시에는 '도석화와 서왕모-19세기 중국 민속신앙과 한국 불화'를 주제로 주수만 우석대 경영학부 교수 특별 강연이 예정돼 있다.

유히태 완주군수는 "지난해 '세잔이 보인다-19세기 프랑스 명화전' 등 굵직한 전시 기획으로 문화계에 큰 영향을 끼친 완주 삼례책마을은 지역의 중요한 문화자산"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 삼례책마을은 고서점과 한책방, 북카페로 이루어진 북하우스와 한국학아카데미, 전시와 강연시설을 갖춘 북갤러리 등 3동의 건물로 구성된 곳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보물같은 완주 여행지로 꼽힌다.

/완주=김명곤 기자

최경식 시장, 산불 심각단계 격상 대응 강화 긴급 지시

남원시, 소각행위 단속·산불취약지역 점검·긴급 구호물자 지원 등 대책 강구

지난 22일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따라 남원시장은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전 부서장 및 읍면동장 긴급 회의를 지난 23일 09시에 개최하고 초동 대처를 위한 방안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남원시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산불예방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사례를 언급하며, 남원시에서도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원시장은 전 부서장 및 읍면동장에게 함께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시했다.

특히 주택 인근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즉



22일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따라 남원시장은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전 부서장 및 읍면동장 긴급 회의를 23일에 개최했다.

각 주민들을 대피시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남원시 26개 읍면동장에게는 긴급 이통장협의회를 실시해 소각행위 금지 및 단속, 산불취약지역 점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피해주민을 위한 긴급 구호물자 지원, 사후관리 강화 대책

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남원시장은 지난 22일 남원시 향교동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현장을 직접 방문해 진화 직원들 및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원 등에게 빠른 산불 진화를 치하하며 안전한 진화활동을 당부하기도 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소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남원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하나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남원시 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20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남원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석대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북자치도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관내 소기업 중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하고 패키지형 기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선발해, 시제품 제작 지원, 상품개발 지원, 상품 판촉 프로모션, 멘토링 등 패키지형 기업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고용 계획이 없는 기업

도 상품 판촉프로모션에 참여 가능하며, 모집 규모는 30개 내외 기업으로 신청은 메일(garam5217@naver.com) 접수 또는 남원시청 기업정책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도 오는 27일 오후 3시 남원바이오산업 연구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063-290-1878)에 문의하면 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올해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기업 발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청년들에게 신규일자리 제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반부패·청렴 정책 강화 기관장 주재 회의 개최



순창군이 반부패·청렴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2025년도 두 번째 기관장 주재 회의를 열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군수, 국·실·과·

소장, 읍·면장 등 고위 간부 37명이 참석했으며, 최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청렴은 군정의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모든 부서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청렴노력도 평가지표가 공유됐으며, 부서별 협조사항과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최 군수는 평가지표 중 하나인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항목을 직접 언급하며, 실질적인 실천과 부서간 협업을 강조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우체국 쇼핑물 농특산물 브랜드관 운영

완주군이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자 확보를 위해 우체국 쇼핑물 브랜드관을 4월부터 운영한다.

우체국 쇼핑물에 '완주군 전용 브랜드관'을 개설하는 것으로 온라인 홍보 활동 및 프로모션 지원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개척 및 매출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군은 79개 업체, 676개 품목

을 우체국 쇼핑물에 등록·판매하고 있으며, 전년도 온라인 매출액은 7억 8,9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주군 지역 농특산물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우체국쇼핑물(mall.epost.go.kr) 사이트 내 '완주군 브랜드관'에 접속해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27일 동상면부터 시작

완주군이 '2025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오는 27일 동상면을 시작으로 출장 상담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올해 10번째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5명의 세무사들이 세무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자 등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제도다.

13개 읍·면으로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해주고 있으며, 평소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올해는 3월 동상면을 시작으로 4월 경천면·삼례읍, 5월 봉동읍, 8월 용진읍·상관면, 9월 이서면·소양면 10월 구이면·고산면 11월 비봉면·운주면·화산면 순으로 1년간 13개 읍·면을 찾아가는다.

상담의 범위는 국세 및 지방세 분야이며,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자비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황의옥 회장·김병수대표 고향사랑기부금 3년 연속 기탁

순창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황의옥 순창아너스클럽 회장과 김병수 호남고속 대표가 3년 연속으로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각각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의옥 회장은 순창군 동계면 출신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2023년부터 매년 500만 원을 꾸준히 기부해 오며 변함없는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2023년 9월 창립된 순창군 객역기부자 모임 '순창아너스클럽'의 초대 회장을 맡아 단순한 기부를 넘어 도농교류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병수 대표 역시 동계면 출신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래 3년 연속 500만 원을 기탁했다. 특히 이번 기탁은 김 대표가 재전동계면향우회장 임기를 마무리하고 차기 회장에게 이임하는 자리인 '2025년 재전동계면향우회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에서 이뤄져 더욱 뜻깊은 기부로 평가받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제95회 춘향제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교육 진행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1일 제95회 춘향제 참여 자원봉사자단체 및 개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소양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 운영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소양을 제공하고, 행사 기간 동안의 역할 및 임무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관공과, 교통과 등 자원봉사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가 참여하여 질의답변 시간도 가져 자원봉사 준비에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

한편, 모집된 자원봉사자들은 이번 춘향제에서 개·폐막공연, 대동 길놀이 행사 지원, 무더위쉼터 운영, 행사 안내, 수유실 운영, 교통질서 유지 및 환경정리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펼칠 예정이다.

남원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는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축제의 얼굴"며 "축제의 시작과 끝을 맡아주시는 남원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윤리·인권경영 헌장 선포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 마을버스 운전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하고, 윤리경영헌장 및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했다.

24일 진행된 선포식은 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경영을 실천하며, 모든 임직원이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직원 뿐만 아니라 기존 임직원들도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함양하는 계기로 삼았다.

또한, 마을버스 운전직원 신규 임용을 통해 봉동 및 용진 지역에도 공영 마을버스를 추가 운행한다.

이희수 이사장은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을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



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만인공원 조성사업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 연다

만인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안 발표 및 구 역사 활용방안·플랫폼 철거여부 논의

남원시가 '만인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역사와 플랫폼 활용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만인공원 조성사업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만인공원 조성사업은 남원읍성 복원 정비사업과 함께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와 정유재란 당시 희생된 민관군 일반여 선열들의 충혼과 역사를 기

리기 위해 남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2027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비 304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공청회는 구역사와 플랫폼 철거여부를 두고 시민들의 다양한 찬반 의견을 듣는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공청회에선 만인공원 조성을 위해 수립 중인 공원조성 기본계획(안)과 남원읍성 복원복원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

하고, 이어서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조성, 복원될 만인공원과 남원읍성 복원이 남원을 지키기 위해 순철한 선열들의 충혼을 기리고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임실군, 애향장학생 120명 선발 2억8천5백만원 지급 계획

(제)임실군 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가 지난 20일 임실군청 회의실에서 장학회 이사·감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2024년 수입·지출 결산안, 2025년 장학생 선발 심의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역 인재 육성과 장학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 중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은 장학금 2회 분할지급을 연 1회 일괄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2025년 장학생 선발 심의안은 앞서 개최됐던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학생 120명을 임실군 애향장학생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은 30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임실군 애향장학생은 1995년 설립돼 1996년 1회 장학생 선발 이래 30여년간 2,200여명의 학생들에게 38억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2025년 임실군 애향장학생 장학 증서 수여식은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전국 역도 동호인 250명 진안고원서 기량뽐내…동호인역도대회성료

지난 22일~23일 진안 역도훈련장에서 진안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진안군역도연맹과 (사)진안역도스포츠클럽이 주관한 ‘2025년 진안고원 동호인 역도대회’가 개최됐다.

엘리트 출신 선수를 제외한 서울시 등 전국 역도 동호인 25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2인 1팀의 단체전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결과 남자부에서는 총남 646팀(경량급), 복포 데빌팀(중량급), 여자부에서는 대구 업스트렘스팀(경량급), 광주 아이칸팀(중량급), 남녀부에서는 대구 업스트렘스팀(경량급), 경기 원섬팀(중량급)이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진안군은 역도를 기반으로 한 ‘2025년 진안고원 전국 쓰로다운(크로스핏)대회’를 오는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진안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관광협의회, 지역 먹거리 개발 통한 마이산 북부 활성화 추진

(사)진안군관광협의회는 24일 예코타운 세미나실에서 마이산 북부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콘텐츠 융역 사업 2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지역 먹거리 개발을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마이산 북부 상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메뉴 선정, 서비스 개선,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컨설팅 등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1차 간담회에 이어 이번 2차 간담회에서는 타 지역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마이산 북부의 독특한 먹거리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지역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특강도 함께 진행됐다.

진안군은 이후 개발된 먹거리를 활용해 고원 음식을 통한 거점상권 활성화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개발된 음식은 스타트업 벤처 지원을 통해 지역의 먹거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지역숙원 임실역KTX정차‘총력’

전북연구원과 정책간담회 갖고, 교류…농생명 산업지구 연계 저지종 도입 육성 방안도

임실군이 임실역 KTX 정차 등 주요 핵심 현안에 대해 전북연구원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군은 지난 21일 심 민 군수와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 주요 현안 사업의 방향성과 논리를 집중 개발하는 데 의견을 교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연구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의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집중 논의된 안건은 ▲육정호 관광자원 개발 ▲농생명산업지구 연계 저지종 도입·육성 ▲임실역 KTX 정차 및 임실역 이전 ▲원광대 글로벌 대학 지역상생사업 연계 과제 발굴 등이다.

특히,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이루고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임실역 KTX 정차 및 임실역 이전 사업의 논리개발과 ▲농생명산업지구 연계 저지종 도입·육성 방안에 대해 전북연구원의 정책 동향, 대응계획 제시 등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임실역 KTX 정차 현안은 전라선 철도의 경우 임실만 KTX가 정차하지 않아, 임실을 찾는 방문객 교통 불편 해소와 생활 인구 확대 및 지역 균형 발



임실군은 지난 21일 심 민 군수와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 주요 현안 사업의 방향성과 논리를 집중 개발하는 데 의견을 교류했다.

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임실N치즈축제와 육정호 출렁다리 개통, 세계명견테마랜드조성 등에 따른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위해 방문객들의 편의성 제고와 35사단과 6탄약창, 국립임실호국원, 전북119안전체험관 등을 찾는 방문객들의 교통편의 차원에서 임실역 KTX 정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현재 육정호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관광개발에 힘 쏟고 있으며, 지난 2024년 육정호 일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에 선정돼 약 5km의 케이블카, 곡선형 썰라인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엔치즈·

낙농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선정에 따라 고단백·고지방 원유를 생산하는 저지종 젖소의 도입 및 육성 기반 조성 등을 통해 기존 홀스타인우 임실치즈 산업의 고급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안 해결 및 국비 확보를 위한 논리 보완 등 특화 발전 전략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전북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천만관광 명품도시 임실군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전북연구원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2년 연속기업하기 좋은 도시‘우수’평가

기업 민원 신속처리단 운영·1기업·1공무원 전담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인정 받아

진안군이 전북자치도의 ‘2024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진안군은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인구 7만 미만 그룹 도시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2024년에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및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구성 운영을 통한 관내 기업 애

로사항 해소 노력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홍보 e-북 제작, 홍삼한방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개관 운영 등 진안군만의 특색있는 사책을 펼친 점이 인정받았다.

또한 연장농공단지에 128억 상당의 국가공모사업이 선정되며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 및 침체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이 평가 가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진안군은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전춘섭 진안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 내 기업들의 협조와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천 원으로 즐기는 최신영화‘시네마 데이’운영

‘천 원으로 즐기는 영화’가 화제다. 무주군에 따르면 25일부터 ‘무주산골영화관 시네마 데이’가 운영되며 12월까지 매주 셋째 주 수요일에는 ‘천 원 영화’를 즐길 수 있다.

‘무주산골영화관 시네마 데이’의 시작을 알리게 될 ‘은빛살구’(감독 장만민)는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상영작으로 세대를 넘어선 가족 간의 사랑과 갈등을 담아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영화 상영 전후로 ‘은빛살구’에서 열연했던 안석환 배우가 무대인사를

비롯해 대화의 시간에 함께 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석환 배우는 이 영화로 산골영화제에 참석하게 되면서 무주와 인연을 맺었으며 지난해부터 재능기부를 통해 무주와 만나고 있다.

2월에는 무주중학교 및 무주고등학교 학생, 교사들과 함께 연극 ‘우리 무주’를 무대에 올려 찬사를 받았다.

무주군청 대권문화과 문화정책팀 임정희 팀장은 “연중 진행될 시네마 데이가 군민 여러분이 부담 없이 영화를 즐기고 삶의 여유를 만들어 가

는 데 필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산골영화관 시네마 데이’는 군민의 새로운 문화 경험을 위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사회공헌 활동)하기 위해 산골영화관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소장 양해연)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무주산골영화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최익호 기자

장수군,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현장실습 교육 실시

장수군은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입주를 앞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현장실습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입주 농업인들의 수직농장 운영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로메인 파종과 이식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경재배의 정식 방법에 대한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은 흙을 사용하지 않고 인공구조물 내에서 생육

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하는 최첨단 영농시설로 날씨나 계절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업체류를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233번지에 위치한 수직농장은 지상 2층, 건축면적 1,740㎡의 규모, 재배실 3실과 공용공간으로 구성됐으며 최초의 공공형 수직농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군은 지난 1월 공개모집을 통해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3명(총 6명)을 최종 선발했으며, 오는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 전 총 5회의 이론 및 현장실습과 입주 후 총 8일간의 현장교육으로 영농경험을 쌓을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수직농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가능하고 친환경 농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수군 임대형 수직농장이 미래 농업의 혁신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대한민국 대표 축제

진안군

콘텐츠부문 우수상

진안군

를 쇼인 하다! 콘텐츠를 하나로 만드는 대한민국

진안군, ‘대한민국 대표 축제’ 우수상 수상

홍삼축제중심 체험 콘텐츠 선배높은평가·콘텐츠부문 우수

진안군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참가해 콘텐츠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는 전국의 우수 축제를 널리 알리고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광 관련 기관 등 226개 부스가 운영되고, 사상 최대로 4만 2천여명이 방문했다.

진안군은 지역 대표 축제인 ‘진안 홍삼축제’를 중심으로 군 홍보 물품, 홍삼 제품 등을 특색있게 전시하고 ‘가위바위보’, ‘홍삼 사탕 무게 맞추기’ 등 체험 콘텐츠를 선보여 관람객과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진안군의 마스코트 ‘빠망’을

내세운 퍼레이드와 콘테스트에서 유쾌한 춤사위를 뽐내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진안군 콘텐츠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진안군청 관계자는 “이번 콘텐츠 부문 우수상 수상은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와 관광 인프라를 통해 진안 홍삼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 축제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올해도 ‘2025 진안홍삼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축제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의회,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 20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에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장종민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김한규 사무처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임실지구협의회 박정옥 총무 등 적십자사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국내외 재해 구호, 저소득층 생계지원, 공공의료 지원, 혈액사업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쓰이며, 임실군의회도 그 뜻을 함께

하기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장종민 의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대한적십자사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특별회비가 각종 구호활동과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문화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임실군의회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110여명 교육생 참석…2025년 농군사관학교 개강

장수군은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의실에서 교육생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장수군 농군사관학교 개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최훈식 군수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김승희 한국농수산대 교수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스마트팜 채소 입문 ▲토마토 심화 ▲사과 다육·밀식 3개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과정별 첫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1개월간 모집을 통해 선발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스마트팜 채소 입문 과정은 9개월, 토마토 심화 과정은 4개월, 사과 다육·밀식 과정은 9개월 동안 진행된다. 교육은 전문 강사진의 지도하에 이론강의와 현장교육을 병행

하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최신 농업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올해 농군사관학교는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2개 과정에서 3개 과정으로 확대 편성했다”며 “교육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수군 농업의 특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지원해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마을기업사무장지원사업 추진2년간인건비지원

임실군이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전북자치도에서만 운영하는 마을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예정자)를 채용하고, 2년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모집을 통해 관내 마을기업 9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모집 대상은 신규 혹은 연장지원 희망 마을기업이다.

최소 매출 2,000만원 이상, 연간 6개

월 이상 운영 중인 관내 신규 이상의 마을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재무제표, 지역 활성화 기여도, 연간 가동률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해, 임실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에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심 민 군수는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은 관내 마을기업의 인력난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선정기업에 효과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군산시·캐나다 원저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사진전 개최

군산시가 캐나다 원저시와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하여 두 도시 간의 오랜 우호 관계를 기념하는 ‘군산-원저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한다.

2005년 자매결연을 맺은 군산시와 원저시는 대표단의 상호 방문, 공무원 파견 근무, 캐나다 원저-에섹스 경제개발공사와 군산시 간의 경제 교류 추진, 어린이 그림 전시회 개최 등 행정, 경제, 문화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며 긴밀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사진전에는 자매처럼 닮은 두 도시의 교류 발자취와 아름다운 군산과 원저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비롯해 양 도시 항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군산시장과 시민들의 자매결연 20주년 축하 영상과 함께 드류 딜킨스 원저시장과 원저시 국제관계위원회의 영상 편지도 상영되어 의미가 깊다.

전시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군산예술의전당 제1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으며, 방문객에게는 원저시 엽서와 군산시 사진 등 기념품을 제공한다.

/군산=지송길 기자



진안 쌍봉사 보경스님, 진안군사회 복지협의회에 후원물품 전달

진안군에 소재한 쌍봉사 보경스님은 지난 24일 쌍봉사 광장에서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 이하 진사회)에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쌍봉사 보경스님은 2021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겨울의류 후원을 시작으로 진사회와 인연을 맺고, 5년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 중이다.

올해도 관내 저소득주민을 위해 백미 10kg 50포(19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현재까지 후원 내역이 백미 200포에 이르고 있다.

또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밀반찬 봉사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영신교회, 학대피해아동 내의 1천 156벌 기탁

변승갑 담임목사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 바라며, 아동들 따뜻한 생활에 보탬 되기 바란다”

전북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강민숙)은 익산영신교회(담임목사 변승갑)를 통해 지난 21일, 익산시 지역사 내 학대피해아동 및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내복 1,156벌을 전달 받았다.

강민숙 전북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학대피해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영신교회에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며, “내복과 더불어 전해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아동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전북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익산영신교회를 통해 지난 21일, 내복 1,156벌을 전달 받았다

변승갑 영신교회 담임목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전달받은 아동들의 따뜻한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료,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우석대 작업치료학과, 완주서 치매극복봉사단 본격 활동

지난 18일부터 활동 시작… 12주 동안 매주 1회씩 작업치료 전공 관련 봉사 이어가

완주군이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 교육을 이수한 우석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치매극복봉사단으로 본격적인 치매극복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치매극복봉사단은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돕는 돌봄 지원, 치매 인식 개선 활동 등 치매 관련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완주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치매극복

사단을 연중 모집해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우석대 작업치료학과 치매극복봉사단은 지난 18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12주 동안 매주 1회씩 작업치료 전공 관련 봉사를 이어가며, 치매극복 걷기 행사 캠페인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석대 작업치료학과는 2017년부터 완주군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돼 치매 관련 교육 및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이 치매파트너 양성 교육을 이수한 우석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치매극복봉사단으로 본격적인 치매극복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정읍 신태인농협, 2025년 장학금 전달식 열어

“학생들이 지역사회 이끌어가는 미래인재 되길 바란다”

신태인농협(조합장 황휘종)은 지난 21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장학생 21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 조합원과 관내 고등학교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이날 황휘종 조합장은 인재의 핵심 역량인 인성을 강조하며, “장

학생들이 학업성취를 넘어 바른 인성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미래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태인농협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조합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남원수지면, 2025년 경로당 보조금 회계교육 실시

수지면 맞춤형 복지팀은 지난 20일 수지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경로당 임원진을 대상으로 ‘2025년 경로당 보조금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로당 회계 관리와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경로당 운영진의 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보조금 지출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특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사

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부식비 사용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등을 과도하게 절감하여 경로당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수지면 분회경로당 황종연 사무장은 “이번 교육은 경로당 보조금의 종류와 사용기준, 지원금 사용의 모범 및 오집행 사례 등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져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주)청후건설 손흥배 대표, ‘무주사랑 고향사랑’ 5백만원 기부

(주)청후건설 손흥배 대표가 지난 24일 “무주사랑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했다. 이날 손 대표는 5백만 원을 기탁, 무주군 발전을 기원했다.

손흥배 대표는 “무주군과는 일 때문에 인연을 맺게 돼 이제는 무주를 응원하고 무주군민이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 됐다”라며 “오늘 전달된 고향사랑기부금이 무주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읍시 태인면에 소재해 있는 (주)청후건설은 흙 콘크리트와 안배관, 조정, 도장, 석공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완주군, 취약계층 아동 ‘1:1 맞춤형 학습지원 사업’ 추진

완주군이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유아·아동의 기초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1:1 맞춤형 학습지원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9개월간 추진한다.

1:1 맞춤형 학습지원원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학습지도가 어려운 가정의 유아·아동 96명을 대상으로 기초학습(국어·영어·수학) 지원과 미술, 책 읽어주기 등 4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보호자와 아동이 직접 신청한 과목을 강사가 가정에 방문해 1:1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 20일 청소년수련관 2층 자람터에서 강사 10명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업 일정 안내와 준수사항 등이 전달되고,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완주=김명곤기자

익산소방서, 하트·브레인세이버 수여식… 총 12명 수여

익산소방서(서장 리명순)는 지난 24일 소방서장실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시민과 구급대원 12명에게 하트·브레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트세이버는 9명(일반인 3명, 소방공무원 6명), 브레인세이버는 1명(소방공무원 1명)으로 총 12명에게 수여되었으며, 이 중 모현119안전센터 소속 최은석 소방사, 임채원 소방사는 하트세이버와 브레인세이버를 동시에 받게 됐다.

특히, 하트세이버 수여자 중 옹포 보건지소 소속 강경오 의사는 지난해 5월 익산시 모현동 배산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에서 누군가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 쓰러진 환자에게 가슴압박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해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최초 발견 상태와 병력, 처치 내용을 알려준 덕분에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로 복귀한 상태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동물복지 닭고기

“가족의 건강에 답하다”

“참! 착하게 키웠습니다”



〈一事一言〉



내란의 빠른 종식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3)

김동준
좋은세상연구소 대표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권력 정치의 행위자들 혹은 극우 파시즘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들은 적을 지목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근거이자 국가의 목표라고 보기 때문에, 적에 대한 모든 폭력은 용납될 수 있다고 본다. 윤석열은 취임 후 거의 모든 담화에서 ‘적’을 지목했고, 언제부터인가 공산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적을 설정하고 군사력을 사용해서 내부의 적을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파시즘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다. 노상원의 수첩에 ‘수거’ 대상을 설정한 것은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처리’ 대상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노상원은 그들에 대한 체포나 구금, 그리고 폭사나 ‘수장’까지 구상했다.

나치즘 하의 어용 법학자 칼 슈미트(Schmitt)는 “주권적 권위는 법률적 질서를 넘어선다”고 히틀러 통치를 옹호했는데, 윤석열과 국힘 지도부가 생각하는 통치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즉 비상계엄이 법적 구속을 벗어난다는 이들의 생각이 바로 파시즘 논리다. 그들은 법을 최고의 규율 체제로 보지 않고, 법 위에 주권자 즉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있다고 본다.

앞의 〈시사 IN〉의 조사 대상자 중 비상계엄은 정당하며,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해도 좋다는 사람들이 대체로 파시즘 지지 세력이다. 그 주력인 보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체계가 가르치는 구원론, 선악 이분법, 그리고 적과 우리의 이분법 논리에 따

라 행동한다. 보수 기독교인들이 보는 ‘신과 마귀’의 이분법은 냉전 하의 ‘적과 우리’ 이분법, 파시즘의 인종주의와 동일한 사고 구조를 갖는다. 그들에게 신과 국가 최고 지도자는 같은 반열에 선다. 윤석열의 담화에 나온 공산전체주의 용어는 한국의 극우파 지식인들로 구성된 ‘한국 자유회의’의 문건에서 나온 것인데, 그들은 주권이란 최고 권력자의 것이며, 개인이 주권자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이들 아스팔트 극우파에게 악의 무리에 대한 ‘정의로운 폭력’의 행사는 성스러운 주권권력의 행사로 간주된다.

이번 윤석열 석방 과정에서 지귀연 판사의 시간 단위 구속시간 산정,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향고 포기는 법의 이름을 빈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다. 지귀연 판사는 자신의 판단이 법에 의한 것이라 하지 않고 ‘변호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검찰총장은 자신의 결정이 ‘소신’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런 결정이 사실상 대통령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거의 실토하고 말았다. 한국은 법의 집행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인권보호’를 위해 작동하는 봉건 왕조시대로 되돌아갔다.

물론 국힘 의원 전부가 윤석열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힘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아스팔트 극우의 행동에 따라 움직인다. 윤석열과 검찰을 정점으로 해서 국힘과 최상목 등 고위 관료,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 그리고 재벌의 네트워크가 극우 행동대의 앞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한국의 기독교 카르텔이다. 이들은 윤석열이 탄핵 당하거나 이후 정권교체가 되면 모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이들 내부의 양심적인 세력 일부는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고, 서부지법 난동도 비판적으로 보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윤석열과 정치적 갈등 관계에 있었던 유승민, 한동훈 등이 모두 윤석열의 석방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들 모두에게 대통령의 헌법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정치적 이해,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기독교 수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치학자 라스키(Laski)가 말했듯이 파시즘은 언제나 국가권력과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무한한 권력을 부여하고, 노동자나 사회적 소수자, 외국인 등 약자들의 기본권은 완전히 박탈한다. 윤석열 정부 이후 몇 번 발생한 ‘임탈막’ 사건과 집요한 언론장악 시도가 바로 극우 파시즘적 통치의 대표적인 전조였다. 조선 노동자 파업 진압,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의사 처단’ 포고령에서 그러한 과거의 군사독재 혹은 파시즘적 사고가 드러났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의 막가파식 정치에 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았던 국힘 의원들의 모습에서, 자기이익 때문에 국가와 법질서의 붕괴도 용인했던 과거 온건보수, 기

회주의적인 보수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탄핵은 반드시 인용되어야 하지만,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한국의 미래는 매우 불안하고 불투명하다. 그리고 탄핵 이후의 시대적 과제는 결코 정권유지/정권교체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집권, 즉 정권이 교체되어도 지금 극우화된 세력의 폭력과 저항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국힘이 아스팔트 극우와 거리를 두어야 하고, 민주당이 이들 온건보수 세력과 손을 잡고 개혁과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트럼프가 통치하는 미국은 트럼프가 아무리 잘못해도 미국의 패권과 자본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나라가 이렇게 적대적으로 분열되어 내전 상황이 지속되면 지난 50년 동안 성취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과가 일거에 원점으로 돌아가고 한국은 3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현재, 한덕수 탄핵 기각 판결 매우 유감이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이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헌법 위반은 맞지만 파면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가 내놓은 이번 결정은 법적 논리를 가장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스스로 위헌이라 규정하고도 정반대의 결론을 낸 판결은 사법기관으로서 현재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과 대행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다.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질서를 수호해야 할 현재가 구성조차 되지 못한다면 이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한덕수 대행은 국회묘 재판관 후보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켰다.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임명하도록 한 조항은 없다.

현재는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한 사안을 심판하면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는 위헌은 맞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동일한 본질의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현재 스스로 논리의 모순을 범하고 있으며 이런 판결이 국민의 눈에 정치적 고려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설특검법 이행을 거부한 것 또한 현재가 판단을 유보하거나 소극적으로 해석한 점이다. 상설특검법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덕수 대행은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상 무력화하

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헌법에 따라 집행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장치를 대행이 무시했는데도 현재는 이를 ‘탄핵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넘겼다.

이는 현재가 정치권력 앞에서 눈을 감은 것이며 결국 위헌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현재의 이번 결정은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현재는 정치에서 엄정 중립적이어야 하며 오직 헌법과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현재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탄핵심판이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판단으로 이미 신뢰를 잃은 현재가, 또다시 정치적 판단으로 윤석열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거나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은 더 이상 현재의 존립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더 이상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헌법과 국민의 뜻을 따르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라면 누구든 파면해야 하며 그 결론은 만장일치여야 한다. 그것만이 현재가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마지막 책무를 다하는 길이자, 국민 불신을 견어내고 현재 존립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현재는 스스로의 사명을 돌아보아 한다. 위헌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정치 판결은 현재를 정치의 시녀로 전락시킬 뿐이다. 현재가 오직 헌법의 수호자임을 증명하는 길은 명확하다.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하는 것, 그것뿐이다.

문화재열전



조필달 신도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유적건조물, 인물사건
-지정일- 2021년 4월 30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김제시 복죽동
112-16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연수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9-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9-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준비 없는 희망 / 박노해

준비없는 희망이 있습니다
처절한 정진으로
자기를 갈고 닦아

저 거대한 세력을
기어코 뛰어넘을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주경야독으로 서울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

진정한 자기 실력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없는 준비가 있습니다.

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1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DJ 정부때 사면으로 7년6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해 가는데
세상과 자기를
머릿속에 고정시켜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개월 만에 출소했다.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되었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했다. 옥중 에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믿을수있는 뉴-스

전북의 중심에서!

광고문의 282-9601

https://www.jeonbuktimes.co.kr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9603

김제시, 다채로운 봄축제로 관광객 영접 채비 완료하다

김제의 봄, 꽃빛·음악·맛으로 물들다!

싱그러운 봄 바람과 꽃, 음악이 지역특산물과 만나 다채로운 분위기를 살려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마치고 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따뜻한 봄을 맞아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축제를 개최하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나들이 가기 좋은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감자의 풍미가 가득한 농촌, 음악과 자연이 어우러진 산속 무대, 그리고 초록 물결이 싱그러게 출렁이는 보리밭까지, 김제 곳곳에서 펼쳐지는 소풍 가기 좋은 축제들이 봄날의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봄 주말은 김제에서 가족과 함께 손에 손잡고 '봄'하면 떠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 보자.

▼ 2025 꽃빛드리 축제

먼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김제 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2025 꽃빛드리 축제가 열린다.

2025 꽃빛드리축제는 '꽃처럼 빛나는 청춘'을 주제로 아날로그 감성과 따뜻한 청춘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 힐링을 선사한다.

올해로 3화째를 맞이하는 꽃빛드리축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내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으며, 벚꽃이 아름다운 김제 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공연이 기획됐다.

6개 존(ZONE)과 8개 프로그램(17개 단위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꽃빛드리축제는 지난해 22개 단체가 참여한 먹거리 부스를 올리는 30개 단체로 늘렸으며, 먹거리 존과 피크닉 존을 확장하고 수변 산책로와 쉼터를 확대해 공간을 확대했다.

아울러 시민운동장 주변에서 자생식물원과 생태공원까지 공간을 확대하고 사전접수형과 현장 진행형,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

했다.

▼ 제15회 지평선 광활 햇감자 축제

제15회 지평선 광활 햇감자 축제도 가볼 만한 축제 중 하나다.

내달 19일부터 20일까지 김제시 광활면 광활초등학교 일원에서 열리는 지평선 광활 햇감자 축제는 해풍을 머금은 비옥한 간척지에서 자란 광활 감자의 우수성을 알리는 축제다.

감자 캐기 체험, 감자 요리 런칭쇼, 햇감자 맛장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햇감자를 활용한 다채로운 음식을 현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든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감자를 주제로 한 지평선 광활 햇감자 축제는 온 가족이 모여 광활지역에서 나오는 맛있는 감자와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 음식, 볼거리 등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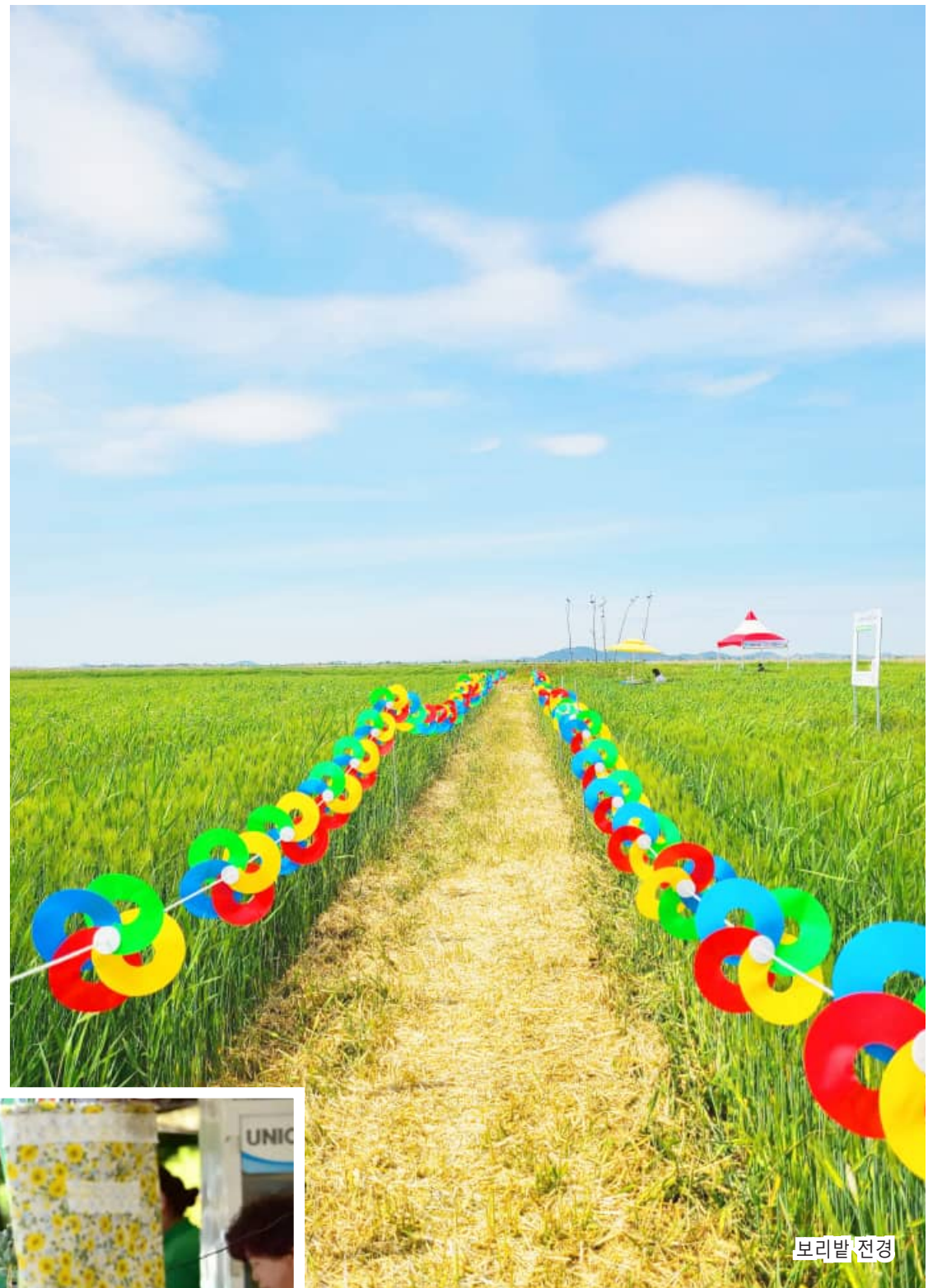
▼ 2025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싱그러운 봄, 음악으로 엮여가는 세대 이야기를 담은 2025년 모악

산 뮤직 페스티벌이 내달 26일부터 27일까지 김제 모악산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은 기존 모악산 축제에서 작년부터 음악을 콘텐츠로 하는 뮤직페스티벌로 정체성을 정립해 김제의 대표 관광지 모악산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관람객들이 음악을 듣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악기를 만지고, 음악을 맛보는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오감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다채로운



보리밭 전경



축제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등 주요 타깃 층을 대상으로 동요, K-pop, 발라드유희, 재즈, 트롯 등 장르별 맞춤형 무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모악산 잔디광장에서 분위기 있는 음악과 함께 봄소풍을 떠나고 싶다면 내달 26일과 27일, 2025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에 참여하자.

▼ 2025 진봉새만금 추억의 보리밭 축제

김제시 진봉면을 대표하는 2025 진봉새만금 추억의 보리밭 축제가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새만금 6공구 원예단지 내 민가섬(진봉면 심포리 산 149) 일원에서 개최된다.

약 7.6ha(2만평) 규모의 광활한

청보리밭을 배경으로 황금보리를 찾아라, 곤포 그림그리기, 보리밭 피크닉&사생대회, 트랙터 마차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어릴적 기억하고 있던 추억의 보리밭은 가슴 시리던 향수와 MZ 세대에게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리밭 축제를 통해 김제의 관광권 이 된 동서도로(16.47km)를 달려보는 것도 색다른 추억을 남겨볼만 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마련했다"며, "김제의 자연과 전통이 담긴 다양한 축제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윤봉기 기자



임실군의회
IMSIL-GUN COUNCIL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

임실군의회

